

Sony, LCD 구매 양동작전 전환

소형패널 공급부족 대응 1곳 추가 ... S-LCD로는 600만대 미달

일본 Sony가 LCD-TV용 패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급기업 1곳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.

Sony는 향후 소형패널 공급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 1곳을 공급원으로 추가키로 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.

Sony는 삼성전자와 합작해 설립한 S-LCD의 공급량만으로는 2006년 LCD-TV 판매목표인 600만대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, Sony는 <브라비아> 브랜드로 LCD-TV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4위, 매출 기준으로는 1위를 달리고 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상훈 기자) <저작권재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06/14>